

경상지역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 워크숍 결과

□ 개요

- 일 시 : 2012. 6. 26(화) 14:00~6.27(수) 13:00
- 장 소 : 경북 청송군청 2층 대회의실
- 주최/주관: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,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
- 후 원 : 국토해양부, 경상남도, 경상북도, 청송군, 경남발전연구원, 대구경북연구원, 부산발전연구원, 국토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
- 참석인원 : 70여명(위원장, 대경권광역위 사무총장, 청송군수, 발제·토론자, 지자체 관계자 등)

□ 진행순서 및 내용

- 개 회 식
 - 개 회 사 : 박광길 (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)
 - 환 영 사 : 한동수 (청송군수)
- 주제발표 : 2건
 -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(이왕건/국토연구원)
 - 시군 특화사업의 브랜드 육성 전략(윤지영/부산발전연구원)
- 특화사례 발표 : 2건
 - 순창장류산업 특화발전 사례(정도연/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장)
 - 문경오미자사업 특화발전 사례(이우식/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계장)
- 지정토론(5명/ 지역위 1, 경북 1, 교수 2, 전문가 1) 및 질의 응답

□ 주요 토론내용

○ 오익근 (좌장 / 계명대학교 교수)

- 지역의 향토 타지역의 동일· 유사 사례들과의 경쟁 극복하고 지역발전 이끌어내기 위 대안 마련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
- 지역위의 발전 컨셉 지역 내부의 하여 발전하 는 취지이지만 “키위”의 사례와 같이 외부의 원 받아들이고 극 하여 내재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발전 사례 발표의 공통점 역사성인데(문헌 근거), 향토성이라는 것 역사성이 있어야 생명력 가질 수 있 며, 향후 유사 상품들의 난립 과정에서 정통성에 대 논란이 있 경우 정통성 인정받 수 있는 가장 중요 수단임
- ‘발효식품 선도하는 순창’의 슬 건과 같이 지 체장이 바뀌어도 지속 되는 아이템 브랜드 서 경쟁력 가지게 됨
- 지역 내 인구 유출에 따른 생 인력 부족 문제의 심 와 인구 고령 에 따른 행정의 재정 부담 증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속 인 지원이 필요
- 의성과 구례의 수유, 주와 청도의 소싸움의 사례에서와 같이 아이템 이나 이슈를 선점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 지속 인 마케팅 전략의 브랜드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 과제임

○ 권용덕 (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)

- 지역 맵 제작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유형과 함께 이를 정리하기 위 구체 인 방법론 마련이 필요함
- 지역 사 의 이미 기존부터 지속 제기되었던 개념이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발전과 기존 관련사 의 차이점 내부 인 노력 중심 하 는 것임

- 지역 사 의 발전 과정 보면 초기단계가 사 에 대 정부의 지원과 치단체 노력 발히 되다가 이후 아이템에 대 벤치마킹 과정에서 유사 중복 아이템의 양 전체 인 경쟁력 약
- 이러 과도기 단계를 극복하고 지속성과 생명력 유지 아이템들 대부분 재 성공 사 평가받고 있는데 문경 오미 , 순창 고 장, 고창 복분 등임
- 사 의 과제 는 유사 중복 아이템의 문제,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련 예 공급량의 감소, 지역 내 브랜드의 난립과 전략 육성 방안의 부족 등임
- 사 위 제안 는 정부 예 에 대 중복·분 투 인 효율성 감소의 극복 위해서 정 사 에 대 정부차원의 집중 인 예 지원 제도 마련과 1, 2차 과 함께 3차 과의 융합 통 성 방안 마련이 필요
- 지역 내 브랜드 중복 난립 극복하고 대표 브랜드 육성 위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전략 지 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수립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 관련 분야에 대 역량강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함

○ 문태현 (경상대학교 교수)

- 지속 인 연구개발이나 홍보가 없 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이며 유사 아이템의 중복 피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 이기도 함. 오히려 지속 인 차별 전략 통해서 중복문제를 극복하기 위 지속 인 노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함
- 사 이끌어가기 위 지역 내의 전문가 집단 중 가장 가능성이 높 집단이 공무원임. 공무원의 리더십이나 조직력 하는 것이 가장 이고 효율 인 대안임. 공무원 구성된 스터디그룹 등 극 해야 함
- 열의를 가 사람,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, 본 가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 어떻게 끌어 모아서(어떻게 키워서) 동할 수 있게 할 것인가? 사례를 들 면 직 대학교수가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전문 인 분야에 대 지원(지식 기부)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와 방법 제공

- 사 재원의 투 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관심 가져야 하며 시범사 의 유치를 통해 사 초기의 동력 얻도록 해야 함
- 사 에 대 데이터를 백 하고 정리하는 기능 가지는 역할 행정에서 담당해줘야 함

○ 나영강 (경북도청 사무관)

- 사 에 대 개발에는 정책차원에서 많 지원이 있지만 이것 그레이트 하기 위 부문에도 정책 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
- 즉, 기존의 지역 브랜드의 경쟁력 높이기 위 (명품 , 그레이트) 지원정책 마련 필요
- 지역의 원 누가 어떻게 페느냐가 중요하며, 행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의 극복 위 대안 마련 필요(공무원의 전문성 계)
- 식량 대책에 대 관심도 발전의 아이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잡곡 부분도 새 운 발전 아이템 검토할 필요

○ 신광호 (성장기반과장)

- 성공 발전사 의 요인 는 품목의 명 선택, 사 리드할 인 원의 확보, 지 체장의 관심과 의지, 브랜드 전략의 수립과 , 행정차원에서의 절 지원정책 등임

□ Q&A 내용

○ 김준호(거제시 공무원, 질문)

- 인 인프라에 대 중요성이 많이 언급하고 있 나 지역 여건상 인 원 확보는 매우 어려운 이며, 일부 사 에서 사 선정 후 관리가 안되어 어려움 겪는 사례가 많이 있음
- 대안 지역 내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비 지원해서 지역의 사 에 대 전문 인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

○ **문태현** 교수(답변)

- 거제 종합발전계획 공무원 체 수립 중임

○ **이왕건** 박사(답변)

- 무조건 인 발전 사 위험성이 있 며 지역의 여건(기후, 인력의 확보 여건, 관련 기반 등) 변 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
- 국가 인 지원 정책과의 연계 기회를 잘 잡아야 하며, 발전 규모 및 수준에 대 인증제 도입 검토가 필요함



▣ 위원장님 인사말씀



▣ 특화발전 주제 발표(국토연구원 이왕건 센터장)



▣ 특화발전 주제 발표(부산발전연구원 윤지영 연구위원)



▣ 순창 장류산업 특화발전 사례 발표(순창군 정도연 센터장)



▣ 문경 오미자 특화발전 사례 발표(문경시 이우식 계장)



▣ 지정토론 전경



▣ 특화 우수사례 현장 답사 (청송 외씨버선길)



▣ 특화현장 청송양원(청송사과를 원료로 한 증류주 “청송아락” 제조) 전경



▣ 특화현장 청송양원 대표의 설명 청취



▣ 주왕산과 대전사 전경